

# 학교 가는 길

경기 남면초등학교

5학년 진해은

비가 내린다. 엄마가 우산을 챙겨주시고 장화를 신겨주신다

뿌연 안개가 내린다. 엄마가 마스크를 씌워주신다

앞산 뒷산 윗길 아랫길이 사라지고

수경이네 성화네 현용이네 집도 사라졌다.

사라진 집에서 아이들이 나온다. 학교 간다.

엄마 아빠 어릴 때는

비 오면 물장구치고 안개 끼면 숨바꼭질 했었는데

나는 기침 나고 코 간지럽고 눈 따가워서 놀기는커녕

아무데도 못 간다.

학교 옆에 공장이 두 개 더 생긴다.

가죽건조장도 있는데 산 너머로 화장터가 들어온다고 한다.

도로에 자동차도 점점 많아지니

이러다가 평생 코 찢찢이가 될까 걱정 된다

새 동지 같아서 동지학교라 부르는 우리학교  
전교생 40명이 다 언니고 다 동생인 우리학교  
선생님들이 삼촌이나 막내 이모 같은 우리학교  
공기만 좋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우리학교

그런데 가난한 학교에 다니니까 좀 슬프다.

얼른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산타할아버지가 우리학교에다  
공기청정기를 10대쯤 놓아주셨으면 좋겠다.

엄마는 내가 비염이 안 나아서 멀리 이사를 가야겠다고 하신다.

나는 전학 가기 정말 싫다.

오늘은 마스크 쓰고 우산 쓰고 장화도 신고 학교 간다

내가 누군지 친구들이 알아볼까

소나기가 와장창 쏟아져서 더러운 공기를 씻어주었으면 좋겠다.